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 부티크 에디션

블랑팡이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 부티크 에디션(Villeret Extraplate Boutique Edition)을 소개한다. 빌레레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옐로우 골드 케이스에 그린 다이얼을 매치했다.

블랑팡은 브랜드의 가장 클래식한 컬렉션에 자신의 고향인 빌레레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통에 충실한 빌레레 컬렉션은 블랑팡 매뉴팩처의 뿌리를 담고 있는 동시에 주요 미학적 코드를 대변하고 있다. 순수한 라인과 가느다란 더블 스텝 케이스를 통해 시계에 있어 타임리스한 우아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 부티크 에디션은 이러한 코드를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 보인다. 블랑팡의 전통적인 컷-아웃 세이지 잎 형태 바늘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린 컬러 다이얼 위를 움직인다. 선버스트 피니싱 처리한 이 매혹적인 컬러 다이얼은 블랑팡의 1151 칼리버를 탑재한 옐로우 골드 케이스와 조화를 이룬다. 칼리버는 언뜻 심플한 듯 보이지만 이 메커니즘의 복잡한 구조는 최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얇은 두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모든 칼리버를 인하우스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블랑팡 고유의 노하우와 오랜 경험 덕분에 두께 3.25mm 에 불과한 고성능 무브먼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블랑팡은 또한 사용자의 편의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침, 분침과 더불어 커다란 중앙 초침과 날짜 창을 갖추고 있으며, 칼리버는 4 일 파워리저브를 보장한다. 이 모든 기능이 8.7mm 두께 케이스 안에 담겨 있다.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 부티크 에디션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계다. 앞쪽에서는 다이얼 피니싱과 손으로 직접 아플리케 처리한 아워 마커를 통해 섬세함을 보여주는 반면 뒤쪽에서는 코트 드 제네브 패턴으로 장식한 브릿지와 허니콤 모티브를 새긴 로터 등을 통해 우아함을 발산한다. 전 세계 블랑팡 부티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계는 브라운 누백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